



“ 미래형 어촌모델을 개발하고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 추진 ”

해양수산부

존경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

2007년 丁亥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이 뜻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여러분 가정마다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 해양을 통하여 풍요로운 희망한국 실현을 위해 금년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해양수산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의 해양영토에 대한 해양주권을 공고히 하고 해양환경 관리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전국 연안에 연안용도구역제 도입을 추진하고 공유수면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등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해양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실태조사를 기초로 금년에 해양생태계보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수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어업인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FTA 협상에 적극 대응하고 이에 따른 어업인 지원대책을 착실히 이행함은 물론 수산자원회복계획과 연근해어선에 대한 구조조정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정리한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재진입을 방지하는 등 불법어업을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어업인 중심의 자율적인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내수면 어업 등 친환경 양식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수산물 양식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며 수협 경영정상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살기 좋은 어촌 건설을 위해 다양한 미래형 어촌 모델을 개발하고 어촌관광단지·어촌체험마을 조성, 관광지원센터 설립 등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및 수입수산물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질 좋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통하여 신 해양산업을 창출하는데 대한 정책지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근거법령을 제정하고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국가 성장엔진이 될 해양생명공학, 해양 자원·에너지분야 등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확대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극지 해양조사를 위해 금년에 7천톤급 쇄빙선 건조에 착수하는 등 남극 및 북극 해양기지에 대한 연구 활동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 하나 하나가 알찬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현장중심, 고객중심, 성과중심의 해양수산 행정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정해년(丁亥年)은 600년 만에 찾아온 황금 돼지해라고 합니다. 새해의 첫날 다짐한 모든 계획과 소망들이 하나 하나 좋은 결실을 맺어 우리 해양수산가족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 1. 1

해양수산부 장관 김 성 진